

시즌 라오(Season Lao), 감성에서 사유의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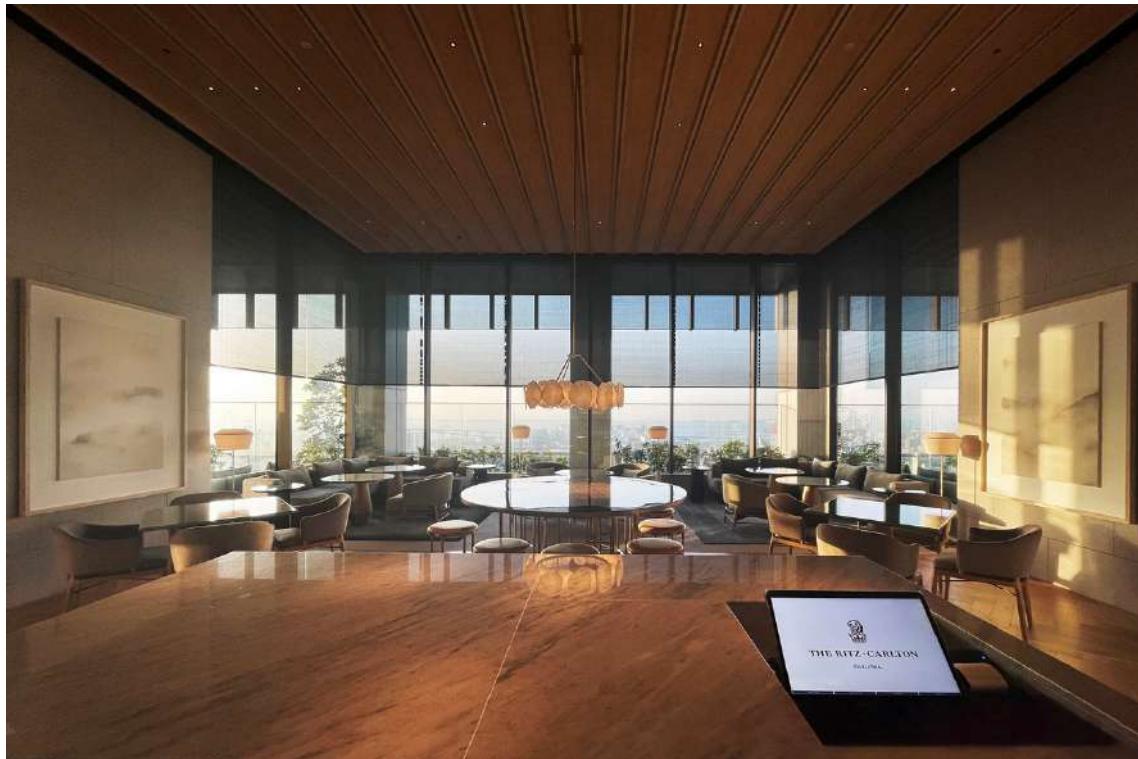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종효

현대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향한 욕망으로 자기화하려는 작가들 의 끝없는 시도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물리적 개념적 시도 모두 한계에 이르고 있다. ‘나는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라는 구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선언 이후 새로운 표현에 대한 시도가 이어졌고, 마르셀 듀상(Marcel Duchamp)이 레디메이드 변기를 선택한 이후 많은 작가는 작품에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매체에 목말라 했다. 아방 가르드에 대한 재현적 현상이 반복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작가들의 작업에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 동양 성이다. 동양적 물질과 개념의 양자적 특성은 아시아 작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작용했지만, 일부 서구 작가는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일찍이 도입하고 있다. 그중에 ‘여백’과 ‘공간’을 빼놓을 수 없다. 여백은 공간으로 이어지고, 공간은 비움을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비움은 없는 것(無)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과정에 존재한다.



the Asian Art Museum in Nice, France

시즌 라오의 작업과 동양 미학의 절대적 관계를 연결 지어본다. 그의 작업 과정은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기억을 자기 안에 내재한다. 태어난 본가의 소중한 추억의 공간을 자신을 비롯한 주위의 모든 이에게 확산 시켜 인식을 공유했고 공간을 지키는 힘으로 승화한 경험이 있다. 카메라의 앵글에 담는 자연의 어떤 풍경 또한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움직임과 마주하는 많은 기억 속에서 무엇이 본인의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착 능력의 실행이다. 평범함의 승화는 특별함의 표현보다 어려운 것이 작업이다. 그가 평범한 자연의 풍경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하는 순간 이미 상상은 전시 공간과 연결되어있다. 세 번째는 남김과 제거에 관한 판단이다. 그 능력은 아주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에서부터 작동한다. 공간에 관한 동양철학의 의식과 접점이 같고, 포착 한 풍경의 이미지를 공간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다. 마지막은 들어선 자에게 부여하는 자유의 시간이다.



Ritz Carlton Fukuoka

그가 시도하는 극대화의 개념은 작품과 공간 중에 어느 것이 주가 되고 부가 되는 수직적 개념이 아니고, 작품과 공간이 플랫한 위치에 공존함으로써 양자는 극대화된다. 전시장 벽에 가로 세로로 걸린 작품들은 마치 벽에 뚫린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된다. 작품과 보는 사람 사이의 공간은 작가가 포착한 그 현장과 같다. 외연과 내연을 넘나드는 공간은 비워주고 채워주는 상호 배려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가 포착한 이미지가 종이

위에 은은하게 펼쳐지는 공간에서의 사유의 시간은 온전히 관람자의 몫이다. 이것이
감성에서 사유의 공간까지 연결되는 시즌 라오의 예술 세계다.



the Asian Art Museum in Nice, France